

존경하는 김풍운목사님과 벅스카운티 성도여러분께

2014년 10월중순 선교소식을 드립니다.



그네 앞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잠보!”

저리가! 이미애선교사가 마을에서 야채를 사가지고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싱긋한 풀냄새를 맡았는지 마을에서부터 졸졸 따라온
소와 염소들에게 외쳐봅니다. 지금 맛사이는 수개월째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진 상황입니다. 맛사이들이 소를 팔아서 그 돈으로
학생들의 학비와 기숙사비를 내는데 가뭄때문에 소를 팔지 못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집도 그렇지만 교회와 학교, 그리고
주변의 맛사이 부족민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중에
종자돈(seed money)으로 천불을 헌금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맛사이 사막 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100m에서 150m 깊이로 파야하기에 펌프와 물탱크시설들까지 3만불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몇분이
5천불에서 만불정도만 해주실수 있으면 이 씨앗이 열매를 맺을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한국
방문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전도하고 일주일에 한번 고기밥을 먹이면서 선교관의 공사를
끝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안에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처럼 온 집안이
물탱크로 넘치고 있습니다. 빗물을 받는 통, 차로 물을 떠오는 통, 집안으로 물을 공급하는통등 많이 있어서
맛사이 아이들에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곤합니다. 아직도 화장실이나 세면대는 집안에 없는
상황이지만 급하지 않게 사역을 해가면서 천천히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달에는 말레티사라는 맛사이 지역
교회 건축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물 프로젝트와
교회건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Painted Avocado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아보카드 열매에 빨간 페인트를 칠해서
사과가 나무에 열렸다고 이선교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선교사는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식달의 한국방문으로 30년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가을을 맞이하고, 또한 과실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움으로 채워지는지 말로 표현을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교도 그리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선교사가 처녀로서 사역을 할때 맺은
열매들이 지금은 동역자로 같이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말씀으로 음식으로
먹이고 있는 이들 학생들이 다시금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해봅니다.

맛사이땅에 하늘높이 솟아 있는 킬리만자로 산이 있습니다. 정상이 구름위에
있는 아프리카 최고봉으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케냐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구름위에 있는 정상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킬리만자로를 한번 보면 10년을 아프리카에 있어야 한다는
현지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안식달에서 힘을 받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사역하라는 위로와 환영인사 같아서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안식달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이들과 함께 살면서 사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교사가 물을 사오는 모습



집 앞쪽에 있는 빗물 집수시설



집 뒤쪽에서 탱크 설치한 모습

성경공부와 전도 이선교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에게 개인전도를 하고 고기로, 과일로, 야채로, 간식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경공부와, 동네목회자들의 성경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왔던 목회자훈련이 2년제 신학교식으로 운영이 되었기에 타교단 목회자나 직장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훈련을 못받은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성경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점이 되는 은혜가 성경공부 시간들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엄마로서 맛사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이미애선교사의 마음은 정말로 말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위해 우물을 파기를 원하고 매주 밥으로 간식으로 이들을 먹이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30년을 선교지에서 굶지 않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케냐는 계속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이 IS와의 전쟁으로 인한 보복테러로 더 신경을 쓰고 있지만 맛사이 땅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지요. 테러의 대상이 있지 않기에 그랬습니다. 다만 이선교사가 저에게 조심을 하라고 합니다. 맛사이 땅에 많이 살고 있는 소말리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집적적으로 전하면 테러의 대상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에볼라가 무엇인지도 여기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서부아프리카에 일어나는 일을 케냐의 일처럼 생각해서 관광객들이 전혀 오지 않는 것을 빼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Come and see what God has done, his awesome deeds for mankind!) 시편 66:5의 말씀처럼 케냐 선교지의 방문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안전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케냐 선교지의 소식을 전합니다.

2014년 10월 19일, 김명수, 이미애선교사올림

[중보 기도부탁드립니다]

* 케냐-소말리아와의 전쟁으로 케냐안에서 모슬렘들의 테러가 구체적으로 또한 저희 주변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현지인들과 저희들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 나이로비와 맛사이의 강의 사역, 선교선타안의 학교사역들이 하나님을 전하고, 알아가게 하는 사역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맛사이 지역 선교관과 학교, 교회, 부족민들이 사용할 우물과 집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 맛사이 지역에 있는 교회중 건물이 없는 4개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 가족 모두의 건강과, 학업과 미래의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함 인도함과 동행이 있도록,



물을 기르는 당나귀마차와 동네모습

연락처: Stephen Kim, P.O. Box 1012-00621 Village Market, Nairobi, Kenya
stephenkim63@hotmail.com (hp) 케냐 +254-715-176 551, +254-735-262 760
 한국후원: 제일은행, 이미애 276-20-091461, 미국: Wells Fargo Bank, TX (Bank #: 112 000 066)
 Stephen M. Kim, Acc # 731 206 8450, 케냐후원 방법은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